

< 세계와 공유하는 한국사 서술의 방향: 한국고대사를 중심으로 >

박현숙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 목차 >

- I. 머리말
- II. 영문 한국사 개설서의 서술 체제와 내용 구성
- III. 역사적 사실의 오류와 한국사학계의 연구 성과 반영
- IV. 한국사에 대한 서구학계의 선입견 문제
- V. 맺음말

I. 머리말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해외에서 한국사 관련 교재들이 잇달아 출간되고 있다. 한국사에 대한 마땅한 교재가 없는 상황에서 이는 한국사 연구자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며, 한국사에 대한 관심의 확산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서구 지역에서 사용되는 한국사 교재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나은 영문 한국사 교재를 서술해보려는 움직임은 최근에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연구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내의 한국학 연구의 맥락 및 앞으로의 전망과 현재 대학에서 한국학을 교수하는 것에 있어서 非한국계 학생들의 관심 결여, 전근대사에 대한 영문 자료의 부족, 언어 문제 등 실질적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 대처 방안을 경험적 차원에서 제안한 시론적 연구가 John Duncan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다.¹⁾ 이어서 박태균교수는 미국의 한국사 교재에서 한국사의 연구 동향과 동떨어진 說들이 정설로서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의 연구성과를 거의 인용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서양사,일본사, 중국사와의 비교가 자주 등장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²⁾ 또한 이남희교수는 이기백교

1) John Duncan, 1995, 「미국대학 한국사 교육의 동향과 문제점」 『역사교육』 58.

2) 박태균, 2002, 「미국의 한국사 교재 분석」 『역사비평』 59.

수의 『한국사신문』 (『A New History of Korea』)과 Bruce Cumings 의 『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 등 한국사 강의에서 주로 쓰는 교재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최근에 나온 교재들을 소개하였다.³⁾

이상의 연구들은 당시 사용되던 영미권 한국사 교재들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탐색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약 10 여 년 혹은 그 이전 시대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을 다루고 있어서, 비교적 최근에 출간된 영문 한국사 개설서에 대해서는 정보와 연구는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의 한국사 서술은 한국사의 특수성을 설명하면서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 인문학으로서의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근자에 출간된 영문판 한국사 교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앞선 연구에서 밝혀낸 한국학계 연구 성과의 미반영, 서구학계의 선입견 등이 최근 영미권 대학의 한국사 교육에서 사용되는 교재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위의 연구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Michael Seth 교수의 『A Concise History of Korea』와 4) Keith Pratt 교수의 『Everlasting Flower』⁵⁾의 한국사 서술 가운데 선사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의 서술의 특징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한국고대사를 중심으로 영문 한국사 교재의 서술 체계와 내용 구성, 한국사학계의 연구 성과 반영과 서구학계의 선입견 문제 등을 통해 검토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글로벌 인문학으로서 한국학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세계와 공유하는 더 나은 한국사 교재들이 마련되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II. 영문 한국사 개설서의 서술 체계와 내용 구성

먼저 Michael Seth 교수의 『A Concise History of Korea』와 Keith Pratt 의 『Everlasting Flower』의 서술 체계와 내용 구성을 알아보기 위해 아래 < 표 1 >과 같이 책의 목차를 정리해 보았다.

3) 이남희, 2007, 「미국 내 대학에서의 한국사 교재의 현황, 문제점 및 보완책 : 한국학·한국문화 교육의 국제화사업 제 2 차 워크숍」 『외국인을 위한 한국 역사·예술·현대문화』.

4) Michael J.Seth, 2006, 『A Concise History of Korea』, Rowman&Littlefield Publishers, Inc.

5) Keith Pratt, 2007, 『Everlasting Flower: A History of Korea』, Reaktion Books.

〈표 1〉 『A Concise History of Korea』와 『Everlasting Flower』의 한국고대사 목차

<p>『A Concise History of Korea』 Michael J. Seth</p>	<p>『Everlasting Flower』 Keith Pratt</p>
<p>1. 기원(The Origins) 지리적인 환경 (Geographical setting) “동아시아 속의” 한국 (Korea “In East Asia”) 한국인들 (The Koreans) 초기 토착민들 (Early Inhabitants) 농경이 시작되던 시기 (The age of rice farming begins) 초기 한국에 대한 기록들 (Sources for early Korea) 조선 (Choson) 한사군 (The chinese commanderies) 한사군과 이웃나라들: 북방민족 (Chinese commanderies and their neighbors : the northern peoples) 한사군과 이웃나라들: 남방민족 (Chinese commanderies and their neighbors :the southern peoples) 3 세기의 정치 (Politics of the third century)</p>	<p>I. 국가 정체성의 창조 (The Creation of State Identity)</p> <p>chapter1. 초기 시기부터 668 년까지: 문화양식의 변천 (From Earliest Times to AD 668 : Cultural Patterns in Flux) 삼국의 발전 (The evolution of three kingdoms) 삼국시대(The three kingdoms period) 문화적인 특징 (Cultural characteristics) - 회화 (Painting) - 음악과 시 (Music and poetry) - 수공예 (Manual arts)</p>
<p>2. 4 세기와 삼국의 출현 (The Forth Century and the Emergence of the Three Kingdoms) 삼국의 출현 (The emergence of the three kingdoms) 왜와 임나 (The Wa and Mimana) 4 세기, 5 세기의 한국과 동북아시아 (Korea and northest asia in the fourth and fifth century) 삼국의 문화와 사회 (Culture and society of the three kingdoms) 골품제, 화백회의, 그리고 화랑도 (The bone-ranks, the hwabak, and the hwarang) 6 세기 말과 7 세기의 변화하는 환경 (The changing environment of the late sixth and seventh centuries) 신라의 삼국 통일 (The unification of Korea under silla)</p>	<p>chapter2. 통일신라 668~936 년 : 자신감의 형성 (Unified Silla, AD 668~936 : The Building of Confidence)</p> <p>‘대국을 섬기다’(‘Serving the great’) -경주 (Kyongju) -문화적 발전(Cultural developments) -불교 (Buddhism)</p>

<p>3. 통일신라 (United Silla)</p> <p>반도국가 (The peninsular kingdom)</p> <p>신라 중앙집권체제로의 통합.676~780 년 (Consolidation of central monarchical rule under Silla, 676~780)</p> <p>신라와 중국식 모델 (Silla and the Chinese Model)</p> <p>신라를 지탱하는 것 (Supporting the Silla State)</p> <p>신라 사회 (Silla Society)</p> <p>종교와 귀족문화 (Religion and Aristocratic Culture)</p> <p>신라와 이웃나라들(Silla and its Neighbors)</p> <p>말해 (Parhae)</p> <p>신라의 쇠퇴 (The Decline of Silla)</p> <p>후삼국시대 (The Later Three Kingdoms)</p>	
----------------------------------------------------------------------------------------------------------------------------------------------------------------------------------------------------------------------------------------------------------------------------------------------------------------------------------------------------------------------------------------------------------------------------------------------------------------------------------------------------------	--

Michael J. Seth 교수의 『*A Concise History of Korea*』는 서술 체제에 있어서 한국에서 출판되는 한국사 개설서의 특징을 많이 따르고 있다. 이 책에서는 한국고대사를 세 시기로 나누어, ‘기원(The Origins: 7~26 페이지)’, ‘4 세기와 삼국의 출현: 27~47 페이지’, ‘통일신라 (United Silla: 49~74 페이지)’로 대단원 구성을 하고 대단원 아래에 많은 소주제를 두어 목차를 매우 세밀하게 분류하였다. 또한 한국사에서 그 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한사군’이나 ‘왜와 임나’ 문제, 동아시아사 속의 한국 등을 두어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한국사를 보려고 한 노력이 엿보인다. 그러나 4 세기에 삼국이 출현되었다고 봄으로써 한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서구 학계의 한국사에 대한 선입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 구성과 서술을 보이고 있다.

반면 Keith Pratt 교수의 『*Everlasting Flower*』는 한국고대사를 1 장의 ‘초기시대부터 668 년까지:문화양식의 변천(29~58 페이지)’과 2 장의 ‘통일 신라(AD 668~936): 자신감(Confidence)의 형성(59~84 페이지)’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필자 나름의 그 시대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 ‘문화양식의 변천 (Cultural Patterns in Flux)’이나 ‘자신감(Confidence)의 형성’이라는 부제가 인상적이다.

그리고 내용 구성에 있어서 각 장의 시작 부분에 그 장에 대한 요약은 간단히 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1 장의 ‘초기 시대부터 668 년까지의 도입부에 다음과 같은 서술이 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한반도에 있었던 초기 사회적 정치적 단위의 점진적인 발전과, 한국사의 첫 역사시대와 같은 삼국의 등장과 발전을 요약한다. 중국 본토와 한반도

사이의 초기 상호작용에 대한 윤곽을 보여주고, 초기 시대의 문화적인 면모에 대해 현대 한국인들이 느끼는 자부심도 설명하고자 한다.”라고 하여 객관적인 서술을 지향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느끼는 자부심이라는 표현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도 특징적이다. 또한 2 장의 ‘통일 신라(AD 668~936): 자신감(Confidence)의 형성’ 도입부에서는 ‘앵글로-색슨(Anglo-Saxon) 영국이 Northumbria, Mercia, Wessex 의 세 개 왕국으로 나뉘어졌을 때, 신라(Silla)의 가야(Kaya), 백제(Paekche), 고구려(Koguryo) 정복은 한반도의 통합을 위한 첫 번째 시기를 확고히 하였다. 이 장에서는 통일신라의 문명에 대해서 소개할 것이다. 비록 중국의 정치적 영향이 동아시아 전체에 걸쳐서 강했지만, 한국은 황해(Yellow Sea) 주변의 교류를 주관하는 것과 문화를 본토에서부터 일본열도로 전수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라고 하였다. 영국과의 상황을 비교한 것은 좀 어색하였지만, 통일신라의 인정과 동아시아사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보인다.

〈표 2〉 『Everlasting Flower』의 Chapter 구성

Chapter	소챕터 제목	분량 6)	해당 시기
Chapter 1 Earliest Time ~ AD 668	제목 없음	5 페이지	B.C. 400,000 ~ 청동기(B.C. 8C ~ 2C) & 단군신화
	삼국의 발전 (The Evolution of Three Kingdoms)	3 페이지	위만조선과 멸망 (B.C. 195~109) ~ 한사군의 소멸 (314)
	삼국시대 (The Three Kingdoms Period)	7 페이지	백제·신라의 등장 (4C) ~ 고구려의 멸망 (668)
	문화적 특징 (Cultural Characteristics)	16 페이지	삼국시대 전반
Chapter 2 Unified Silla AD 668 ~ 936	대국을 섬기다 (Serving the Great) - 경주, 문화적 발전, 불교-	26 페이지 - 17 페이지 -	법흥왕과 골품제도 (6C) ~ 장보고의 죽음 (846)

6) 원서의 분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추가적인 읽기자료는 제외하고 분문의 분량만으로 계산하였다. 페이지를 살짝 넘나드는 분량 차이는 세부적으로 나타내지 않아서 <표 2>의 페이지 총합과 실제 페이지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

『*Everlasting Flower*』의 선사 시대 서술은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된다. 본문의 첫 문장은 ‘약 40 만 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homo erectus)는…’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한반도 인류의 기원을 40 만 년 전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생인류의 직접적 기원으로 파악하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homo sapiens sapiens)의 출현 시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다만 이를 구석기시대의 중기(지금으로부터 10 만 년 전 ~ 4 만 년 전)와 연결 짓는 듯한 서술을 하고 있다. 신석기 시대의 시작은 기원전 6,000 년 전으로 서술하였으며, 청동기 시대의 도래는 기원전 8 세기경으로 서술하였다. 그러나 그에 앞서 고인돌을 설명하면서 이를 ‘신석기 시대 후기에서 청동기 시대로의 이행’으로 서술하여, 신석기→청동기 이행 과정 및 청동 민무늬 토기의 출현과 벼 재배를 1,200 년경으로 서술하고 있다.

고조선 관련 서술에서는 고조선 건국 연대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위만조선은 기원전 195 년으로 특정 시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기원전 195 년. 위만에 의해 새로운 수도가 현재의 평양 근처 왕검성에 만들어졌다.’라고 서술하여 위만조선과 이전 조선 사이에 지배층이 교체되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고조선의 서술을 ‘삼국의 발전(The Evolution of Three Kingdoms)’이라는 후에 같이 서술한 것은 한국사 연구동향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사군의 성립과 소멸을 중요한 분기로 여기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개설서 Chapter 1 의 소주제 2 가 한사군의 소멸을 마지막으로 서술하고 있는 모습을 위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사 개설서의 전개 방식과는 사뭇 다르며, 이와 같은 차이는 단순한 저자의 시각을 넘어서 서구 학계의 시각에서 한국사를 보는 입장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313 년 기리영 전투에 대한 서술이라든가, 400 년 광개토왕에 기록된 이야기, 단군릉, 무령왕에 대한 묘사, 김춘추와 김유신에 대한 서술 등 외국인을 위한 개설서 수준을 뛰어 넘는 구체적인 이야기들도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삼국시대 이후의 서술은 문화사나 인물사 위주의 네러티브적인 서술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경향은 네러티브적인 맥락적 서술을 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파악된다.

1 장의 마지막 서술에서는 ‘수나라와 당나라의 재통일이 중화제국(Middle Kingdom)의 권한을 강화시켰을지라도, 한국과 일본은 단역배우 그 이상이었다.’고 하여, 한국사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설명하면서도 한국사의 동력과 역할을 일부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신라에 대한 서술의 서문에서 통일신라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세계사(영국사) 속에서 통일신라가 동아시아에서 가지는 국제교류의 역할에 대해서 서술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주요 주제를 보면 ‘중국에 대한 사대’, ‘경주의 문화유적’, ‘문화의 발전’, ‘불교’, ‘통일신라 12 간지’, ‘장식기와’, ‘불국사와 불교유물’, ‘신라의 공예기술-상원사 범종’ 이다. 정치와 사회 모습뿐만 아니라 통일신라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까지 세세하게 다루고 있다.

마치 여행가가 현재의 역사모습을 서술하는 듯한 기행문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주제나 서술은 체계적이고 깊이가 있다. 현재 경주의 풍경을 詩的으로 표현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여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있다. 안압지와 거기서 출토된 14 면 주사위 유물, 포석정 등을 옛 사료를 인용하여 서술하면서 이야기가 있도록 재구성하여 통일신라의 다양한 모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저자는 서술 중간중간에 개입하여 자신의 역사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갖가지 포로들의 사례를 나열하면서 ‘이들의 감정은 어떠했을까?’와 같은 질문을 하거나, ‘농민들은 때때로 완전히 당황했으며, 당황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르거나 자신들이 어느 국가에 속해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을지 모른다.’라고 서술하는 등 당시 피지배층이나 비권력층에 대해서 감정이입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다른 영문 개설서에 비해 문화 부분 서술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며, 역사의 해석과 관련된 서술의 비중이 큰 편이다. 마치 미술사를 전공한 여행가가 현재 남아 있는 통일신라의 유적을 같이 다니면서 통일신라시대를 이야기 해주는 듯하여 어려운 용어나 내용도 외국인에게 쉽게 전달될 것으로 생각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통사적 접근으로 통일신라의 변화를 보여주기 보다는, 주제별 전개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음악과 시 등 일반적으로 한국의 개설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악기의 종류 등도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 관련 서술이나 최근의 북한의 연구사 동향을 반영하는 서술이 많이 보이는 특징도 있다. 그 밖에 읽을거리 자료는 ‘동수의 초상화’, ‘회색 돌 항아리’, ‘회색 돌로 만든 제의 그릇’, ‘무령왕릉의 관’, ‘동석에 새겨진 돼지’, ‘장식된 기와’, ‘불국사 불상’, ‘상원사 동종’ 등으로 읽을거리 선정의 중요도 면에서는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사를 중심으로 한 개설서라는 느낌을 잘 전해 주고 있어서 앞으로 영문 한국사 개설서 서술의 방향과 관련하여 시사를 받을 부분이 많다고 생각된다.

Ⅲ. 역사적 사실의 오류와 한국사학계의 연구 성과 반영

『*A Concise History of Korea*』에는 많은 사실 오류가 보인다. 이 가운데는 사실을 잘못 기록한 부분도 있고 해석의 차이에 따른 오류도 일부 발견된다. 예를 들면, “쌀은 한국에서 지난 몇 천년 사이에 주요한 농작물이었다. 언제 한국에서 벼농사가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기원전 2 천년에서 1,500 년 사이, 빗살무늬 토기 문화는 무늬가 없고 두 개의 테를 두른 무문(mumun)무늬 토기나 민무늬 토기 스타일로 바뀌었다. 이 기간 동안에 분명하게 정착생활로서의 농사가 시작되었다. 무문무늬 문화의 초기에 사냥, 낚시, 먹이를 찾아 다니는 것은 여전히 매우 중요했고, 고고학적 증거는 기원전 천년까지는 벼농사가 광범위로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라든가, “한국 역사학자들이 청동기가 더 이른 시기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족 이상으로 존재하는 집단이 이 시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다. 철기 또한 기원전 300 여년 전 중국으로부터 한반도에 들어왔다.” 고 하여 한국사에서의 고고학적 연구 성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고조선과 관련하여, “한국 역사책에서는 기원전 2333 년 단군신화에 의해 나라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반론이 없는 조선이라는 최초의 정치적 독립체는 기원전 109 년에 세워졌다. 109 년에 세워진 나라도 나라이기 보다는 부족의 연맹같았다.”라고 하여 고조선의 실체를 부정하고 위만조선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가 단계의 위만조선을 부족 연맹으로 이해하여 한국사의 고대 국가 형성을 상당히 늦게 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고대사 서술에 있어서 최근의 연구성과 등을 거의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서구학계의 선입견이나 중국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참고문헌의 전문성과 일관성도 떨어진다. 참고문헌에 근거한 일관된 서술도 보이지 않는다. 참고문헌을 참고했는지도 대해서도 의문이 가는 서술들이 많이 보인다.

『*Everlasting Flower*』 역시 선사시대 서술은 한국 개설서의 시기 설정과 차이를 보인다. 『한국사통론』에서는 구석기의 시작과 관련하여 공주 석장리, 단양 금굴의 유적 아래층 등의 근거를 들어 60 만년, 혹은 70 만년 전이라는 학설을 제시하고 있다.

신석기 시대는 기원전 6 천 년 전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청동기 문화의 유입을 기원전 10 세기 경으로 서술하여 한국의 개설서 등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백제, 신라 및 가야의 건국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백제와 마한 멸망에 대한 서술 부분을 고려하자면, 저자는 4 세기 중엽에 백제가 고대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백제 성왕대의 일을 무령왕대로 보거나, ‘백제의 봉건 영주인 담로왕’, 520 년에 신라가 골품제를 행정법률로 포함했다는 등 잘못된 서술이 곳곳에서 보이기도 한다. 다음의 < 표 3 >은 이 책의 역사적 오류 가운데 몇 가지와 그에 따른 참고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Everlasting Flower』의 역사적 사실 오류 예시

	내용	비고
1	‘연은 압록강을 가로지르며 동쪽으로 뻗어나간 장성의 두 구간에서 건립되었고 ...’	전국시대의 장성이 압록강 넘어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동북공정의 영향을 받은 서술로 보인다.
2	‘그들(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는 환도성이었고 ...’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는 졸본이다.
3	‘209 년 공손씨의 군사작전은 고구려가 수도를 압록강 건너 국내성으로 이동하도록 만들었다.’	209 년은 산상왕 환도성으로 천도한 해이지만, 《삼국사기》 기록에 공손씨의 군사작전은 보이지 않으며 城의 명칭과 위치도 잘못되었다. 7)
4	‘한국 왕실은 중국적인 의례와 의식을 채택하기 시작하고, 중국 황실의 관복 규정을 따르기 시작하였다.’	신라가 당의 관복을 채택한 것은 7 세기에 들어서이며, 백제와 고구려가 중국의 관복을 채택했다는 역사적 근거는 없다.
5	‘이곳(웅진)은 그(개로왕)의 차남 사마가 501 년 즉위한 곳이고, 525 년 사망 후 묻힌 곳이다.’	사마, 즉 무령왕의 출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개로왕의 둘째 아들이라는 주장은 문주왕의 아우 곤지의 둘째 아들이라는 설을 잘못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라의 사회모습과 왕조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삼국유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를 ‘기적, 미스터리, 야화로 짝 차여진 사료’라고 인식하고, 당시 사람들을 미신적 사람들로 보았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해석을 위하여 활용된 여행담사기 혹은 기행문과 같은 서술구조는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으나, 통일신라의 역사를 맥락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

7) 『삼국사기』 제 16 권, 고구려본기 4, 산상왕 13 년 10 월조.

IV. 한국사에 대한 서구학계의 선입견 문제

『*A Concise History of Korea*』에서 찾아지는 서구학계의 선입견과 관련하여 그 첫 번째는 지리 결정론에 대한 것이다. 책의 도입부인 ‘1. 기원(The Origins)’에서 ‘지리적인 환경 (Geographical setting)’이라는 장을 두고 있다. 시간의 문제를 다루는 역사라는 학문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공간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기원 문제와 관련하여 ‘지리적인 환경 (Geographical setting)’을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 서술을 살펴보면, “한반도는 지형적 특징 때문에 해양업이 발달하지 않았다.”라든가, “한국의 지역적 특징으로 인해 세계문화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었으며, 한국사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지리 결정론적인 서술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사의 중국 의존성을 통한 타율성론을 강조하는 듯한 서술이 많이 보인다. “한국과 중국의 근접성은 한국의 역사가 만들어지는데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 중국은 문화적 교류를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으나, 대부분의 시간 동안 큰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 이 거대하고 오래되었으며 부유하고 힘이 센 이웃인 중국은 한국의 정부, 학문, 문화적 정교성의 주요한 기초 모델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으며,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가교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즉, 한국을 통하여 불교와 문학 등의 중국 문화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전파되었고, 19세기 후반 이전까지 이러한 교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일방적인 교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종종 그들이 ‘고래들 사이의 새우’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은 소극적인 희생자 이상으로, 중국과 일본, 북아시아라는 서로 작용하는 큰 지역안의 일부였다. 한국의 역사에 대한 이해는 위 지역의 이해가 있어야 빛을 받는다.”라고 서술하였으며, “중국 봉건제도의 탄생은 한국 역사의 발전에 중요하다. 그것은 한반도의 사람과 중국의 발전된 사람들의 직접적인 교류를 가져왔으며, 한국 사람들이 중화되어지는 과정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극단적인 서술도 하고 있다.

한국사에서 중국의 역사나 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와 문화 교류의 현상을 한국이 ‘중국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국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옆에 있으면서도 효율적인 외교관계를 통해 독립을 유지하였으며, 중국의 선진문화를 한국화하면서 한국사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verlasting Flower*』는 전근대, 그것도 굉장히 앞선 시기의 내용을 소재로 한 까닭인지 오리엔탈리즘이나 서구중심주의와 관련된 서술이 크게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서술상의 특징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 관련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사의 내용을 동시기 중국의 상황과 연결지어 서술하는 일종의 비교 대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선사시대 서술 가운데서도 막연하게 중국 기원설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띈다.8)

중국사의 내용은 고구려와 수와의 전쟁과 같이 대외관계사 등에서는 반드시 일정 부분 이상의 서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꼭 필요하지 않은 중국과의 비교 서술도 많이 보인다. 예를 들면, 위만조선이 성립한 기원전 195년 이전의 상황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한 페이지 가량 되는 문단의 절반 가까이를 중국 전국시대~한나라 시기의 서술에 할애하고 있다. 비록 이것이 한국사의 서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지나친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외국인이 쓴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신라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통일신라 역시 그 자체의 시대로서 이해하기보다는 서구 중심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신라가 노예제 사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와 그리스와 같은 유럽의 상황을 한국사에 지나치게 대입하였다. 이는 동양적 체제와 한국적 사회구조를 간과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통일신라의 유학생, 불교, 음악, 건축 등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특징을 중국의 ‘조공체제’ 아래에서 해석하고 강조함으로써 통일신라를 중국에 종속적 성향이 강한 국가로 만들어 버렸다. 통일신라시대의 시작을 중국에 대한 신라의 사대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전개도 이 틀 안에서 이루지고 있다. 또한 삼국통일과정에서 唐의 역할과 이후 통일신라와 唐의 관계를 설명하면서도 그 초점은 ‘조공체제’에 맞추어져 있다. “통일신라의 지배층을 국가를 건설하고 운영하기에 미흡한 존재로 표현하면서 중국과의 교류로 통치기법을 배워야 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8) 예를 들면, ‘기원전 2 세기에 더 남서쪽의 영산강 유역에서 발견된 돌거푸집은 양쯔강 삼각주 지역 방면으로부터의 온 중국 영향의 가능성을 암시한다.(입증하지는 못하지만)...’이라는 표현 등 한국의 신석기와 청동기의 연원을 관계가 없는 중국과 연결시키고 있다. 또한 ‘중국 거울의 거푸집에는 뚜렷한 우주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한국의 거울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중국 거울의 거푸집은 돌보다는 점토로 만들어졌다.’고 서술하는 등 비교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비교하는 서술들이 자주 보인다.

통일신라뿐만 아니라 발해도 중국에 종속된 국가로 묘사하면서 唐의 종주권을 인정하며 외국과 교류하였다고 서술하였다. 물론 ‘조공체제’라는 것이 아시아의 유교적 질서체제의 특성이라는 점은 밝히고 있지만, 신라의 왕경 건설이나 문학, 음악, 건축 등 모든 것이 중국과의 종속적 관계에서 얻어진 결과물이라고 서술하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며, 한국사에 대한 올바른 서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V. 맺음말

이상으로 최근에 출간된 영문 한국사 개설서 2 권을 살펴보았다. Michael Seth 교수의 『*A Concise History of Korea*』는 한국사 개설서로서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동아시아사 속에서 한국사를 보려고 한 장점이 보인다. 그러나 한국사 전공자의 영문판 한국사 개설서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오리엔탈리즘과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사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한국 사학계의 연구성과 미반영과 사실 오류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찾아진다. 또한 최근 연구동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며 한국사에 대한 뚜렷한 관점도 보이지 않는다. 어떤 독자를 대상으로 한 개설서인지도 불명확하며 저서 자체로서의 매력도도 떨어져서, 노력에 비해서 영문 한국사 개설서의 완성도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책이다.

Keith Pratt 교수의 『*Everlasting Flower*』를 처음 접할 때는 제목이 의아했다. ‘무궁화’라는 제목이 주는 개설서 제목으로는 어색한 불편함이 있었으나, 무궁화는 어떻게 보면 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영원히 피는 꽃이라는 한국사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고대사 관련 부분을 읽었을 때에는 선사시대 부분에서 오리엔탈리즘적인 서술과 사실 오류가 보여서 이 책 역시 문제가 많은 영문 한국사 개설서라는 선입견을 가졌다. 그러나 책을 읽다 보니 한국사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보이며, 필자 나름의 한국사 인식을 가지고 한국사를 재구성해 보려는 노력의 흔적들이 찾아졌다.

한국사 서술 내용의 중요성 선택 부분에 있어서 한국 사학자들과의 차이점은 있으나, 나름의 문화사적이며 네러티브적인 서술을 견지한 것은 좋게 평가할만하고 생각한다. 그리고 소개 선택에서 집중과 선택이라는 문제점은 있지만, 집중하려는 부분의 서술은 사료를 정확히 인용하고 최근의 연구자료들을 활용하면서 이야기를 쉽게 전개하고

있어서 장점으로 작용한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한국사학자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한국사 개설서 서술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또한 『*Everlasting Flower*』는 여행답사기처럼 서술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고, 한국사라는 새로운 문화를 깊이 있게 접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각章에서 다루는 시대의 회화, 음악, 예술과 같은 문화적 전통과 특징에 대한 소개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외국인 독자가 읽기에 보다 매력적이며, 한국 문화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친절하게 쓴 책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필자는 개인적인 관찰이나 박물관, 역사적인 유적지를 방문했던 자신의 경험을 녹여내면서도 한국 역사에 대해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흥미로운 서술방식을 취했다고 보인다.

『*Everlasting Flower*』를 읽으면서 한국사 연구자들보다 한국의 전통사회를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특징이 보였다. 연구주제가 특정 시대의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도 자신의 결론은 그 시대 전후의 역사적 맥락에서 해석하여 일반화하려는 노력이 나타난다. 아마 이러한 점은 한국사를 제 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2 권 모두 중국과 관련을 지어서 한국사를 이해하려는 경향, 백제사 서술의 빈약함, 4~5 세기 이전 삼국시대의 서술 부족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각 책에서 보이는 역사적 사실의 오류 또한 적지 않았으며, 그와 함께 한국고대사의 대표적인 1 차 사료라고 할 수 있는 『삼국사기』를 신뢰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他者로서 서구적 관점이나 인식을 한국사에 직접 대입하거나 중국 중심의 동양적 질서 속에서 한국사를 정리함으로써 한국사의 정체성을 정확히 부각시키지 못하는 문제점도 찾아졌다.

그리고 한국사 개설서이면서도 한국사학계의 연구 성과가 잘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며 인용되고 있지도 않았다. 몇 편 되지 않는 한국의 참고문헌이 기록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사관과 관련해서는 기본 서구 학계의 경향을 주로 수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한국사에 대한 개설서라면, 한국에서 나온 대표적인 책들 또는 입문서와 같이 연구사 경향을 정리해 놓은 글들은 제시하거나 참고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 측의 연구 성과나 시각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영문 한국사 서술시에는 최소한 한국사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무관심에서 오는 편견을 줄이고, 한국사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해 기존 연구들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미국의 한국사 교재들에서 한국사의 연구 동향과 동떨어진 學說이 정설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의 연구 성과를 거의 인용하지 않는다는 점, 서양사·일본사·중국사와의 비교가 자주 등장한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점으로서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술의 오류나 관점의 문제는 있지만, 기존의 영문 한국사 개설서에 비해서 점차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Keith Pratt 교수의 『*Everlasting Flower*』는 문화사 중심의 한국사 서술을 하고 있어서 시기 및 연대의 설정이 한국에서 나온 한국사 개설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문화사 중심의 친절한 해석이나 동아시아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국사를 이해하려 한 서술 경향은 국내 연구자들이 시사를 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한국사 개설서를 서술할 때에는 한국학자의 입장이 아닌 외국 독자의 관심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또한 한국사 연구성과에 대한 미반영, 사실의 오류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한국사 연구 환경이 글로벌화 될 필요가 있다.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외국의 학자들도 수긍할 수 있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국사 연구를 진행하고 외국에 있는 한국사 연구자들과의 교류의 場을 확대하여 한국사 연구자들의 시각과 연구성과가 반영된 영문판 한국사 개설서가 서술 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외국 독자의 수준에 맞는 영문 한국사 개설서를 마련한다면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한국사를 서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